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최경주

나상욱

최경주·나상욱 '쾌조의 출발'

PGA 투어 챔피언십 1R… 2언더 68타 5위·1언더 69타 공동 6위

최경주(40)와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 첫날부터 매서운 샷을 뿜어냈다.

최경주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는 2개로 막고 버디 4개를 잡아 2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제프 오길비(호주), 루크 도널드, 폴 케이시(이상 잉글랜드)가 4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 짐 퓨릭(미국)이 3언더파 67타로 4위에 오른 가운데 최경주는 5위에 자리를 잡았다.

플레이오프 1차 대회에서 컷 탈락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던 최경주는 2차 대회부터 성적을 끌어 올려 30명만이 겨루는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얻는 뚝심을 발휘하며 대반전을 일으킬 발판을 마련했다.

최경주는 페어웨이 안착률이 64%로 다소 떨어졌지만 그린 적중률 72%이 말해주듯 안정된 아이언샷을 날렸고 퍼트수도 28개로 줄이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전반에 2타를 줄이며 상승세를 탄 최경주는 13번홀(파4)에서 3.5m 짜리 파퍼트를 넣지 못해 1타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주는 15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1.2m에 붙이며 가볍게 버디를 잡아 타수를 만회했다.

최경주는 "오늘처럼 2타씩을 줄이며 올라간다면 우승도 넘볼 수 있다"면서 "내일은 좀 더 정확한 티샷을 날리고, 퍼팅 그린도 정교하게 읽어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나상욱도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1언더파 69타를 치며 필 미켈슨, 헌터 메이헌(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와 함께 공동 6위로 첫날을 마쳤다.

나상욱은 5번홀(파4)과 6번홀(파3)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지만 7번홀(파4)부터 9번홀(파5)까지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언더파 스코어를 만들었다. 특히 나상욱은 퍼트수 27개만을 기록하는 정교한 퍼트 실력을 뽐냈다. 한편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매트 쿠차(미국)는 2오버파 72타를 쳐 19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대표팀 김윤지〈왼쪽〉 선수가 23일(한국시간) 체코 브르노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선수권대회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6.8초 남기고 역전슛 세계4위 브라질 잡다

세계여자농구 C조 1차전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제16회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세계 4위의 강호 브라질을 잡았다.

세계 랭킹 9위 한국은 23일(한국시간) 체코 브르노에서 열린 대회 첫날 예선 C조 1차전 브라질과 경기에서 경기 종료 6.8초를 남기고 김지윤(신세계)이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을 성공, 61-60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전반을 33-29로 앞선 대표팀은 3쿼터에서도 김단비(신한은행)의 3점슛과 김계령(신세계)의 중거리포, 변연하(국민은행)의 골밑슛을 묶어 42-33까지 앞서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브라질에 연달아 9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고 변연하의 3점포로 48-47로 앞선 3쿼터 종료 17초를 남기고는 브라질에 연속 두 골을 허용, 48-51로 뒤진 가운데 3쿼터를 마쳤다.

대표팀은 4쿼터에서도 종료 4분을 남기고까지 53-58로 뒤져 패색이 짙어 보였다. 53-53에서 에리카 드소자, 팔미라 마르칼에게 연속 5점을 내주며 승부의 균형이 기우는 것 같았다.

역전 드라마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김계령의 2점슛으로 간격을 좁힌 대표팀은 변연하가 2점을 더 보태며 종료 2분46초 전에는 58-57까지 간격을 좁혔다.

브라질이 드소자의 골밑슛으로 60-57을 만들었지만 대표팀은 다시 1분08초 전 김계령이 2점으로 응수,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후 종료 9초를 남기고 김지윤이 날쌔게 상대 공을 가로채며 그대로 속공으로 연결, 짜릿한 역전 승부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여민지·김아름·이금민 골든볼 후보에 올라

U-17 여자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월드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여민지(17) 등 한국 선수 3명이 대회 최우수선수상격인 골든볼 후보에 올랐다.

FIFA는 24일(한국시간) U-17 여자월드컵 골든볼 후보 12명을 발표하고 대회 기자단을 상대로 투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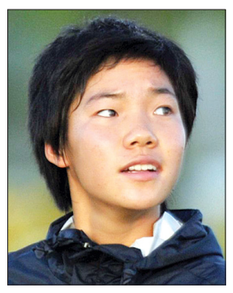
후보 12명 가운데 득점왕을 사실상 굳힌 여민지와 대표팀 주장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맏언니' 역할을 해 온 김아름(17), 오른쪽 공격수로 전 경기를 출장한 이금민(16) 등 한국 선수 3명이 포진했다.

결승 맞수인 일본도 요코야마 쿠미(17)와 미드필더인 카와시마 하루나(17), 나오모토 히카루(16) 등 3명을 후보로 올렸다.

결승전은 26일(한국시간) 오전 7시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오브스페인의 해슬리 크로퍼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여민지

김아름


이금민

3-4위전을 치르는 북한과 스페인 선수 가운데 김금종(5골)과 김수경(2골 1도움), 나고레 칼데론(1골)과 아만다 삼페드로(1골) 등이 후보로 선정됐다.

이밖에 준결승에서 한국에 진 독일의 레나 페테르만(16)과 8강전에서 한국에 무릎 꿇은 나이지리아의 은코지 오코비(5골 3도움)도 골든볼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 참가 선수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볼은 득점왕이나 우승국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외도 있었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1회 대회 때 골든볼을 탄 이와부치 마나(일본)는 팀이 8강에 머물렀고 2골(2도움)에 그쳤지만 득점왕 제니퍼 마로잔(독일·6골)을 따돌렸다. /연합뉴스

두산-롯데 29일 준플레이오프

올해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포스트시즌이 오는 29일 막을 올린다.

프로야구 전체 페넌트레이스 532경기 가운데 523경기를 마친 가운데 3위 두산과 4위 롯데는 오는 29일부터 5전3선승제로 준플레이오프에서 맞붙는다.

1, 2, 5차전은 두산의 안방인 잠실구장, 3, 4차전은 롯데의 홈구장인 부산 사직에서 각각 열린다. 정규리그 1경기와 2경기를 각각 남겨둔 두산과 롯데는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롯데가 12승7패로 앞섰다.

준플레이오프 관문을 통과하면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기다리고 있다.

삼성은 두산에 상대전적 10승9패, 롯데에 9승8패1무의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더라도 최강 SK가 일찌감치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상대를 기다린다. SK는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얻었고 오는 10월15일 1차전까지 20여일의 준비 기간이 있어 2연패를 달성했던 2008년 이후 2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부음

▲나금자씨 별세 이세무(여수 시청)·현숙·석우(광주일보 광고마케팅 국장)씨 모친상=발인 25일(토) 여수 장례식장 2층 2호실 장지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여수 시립공원묘지. 061-688-4472.

▲노인환(전 광주시장)씨 별세 재현(건축사)·재관(전 서울중앙지법·광주지법 부장판사)씨 부친상 권진욱(법무법인 광주로펌·前 광주변호사회 회장)·한병용(전 여수시장)씨 빙부상=발인 25일(토)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010-3260-3179.

▲김흥남(서양화가)씨 별세 혁진(㈜허브 대표)·혁정(한영대 교수)·혁민(경도수산 대표)씨 부친상 조유정(광주전산고 교사)씨 시부상=발인 2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062-220-3352.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영자 님(여/81세)
子/子婦 : 하윤상·나정순, 윤식·구화자, 윤태·김성숙
女 / 壻 : 하경희·김여주, 윤정·배익순
• 호 실 : 201호 • 발 인 : 9월 25일 • 장 지 : 함평 학교면 선영

故 유상임 님(여/90세)
子/子婦 : 조대호·최옥님, 승호·이수자, 필호·박성순
女 / 壻 : 조명숙·서원종, 유순·선병길, 윤자·이현구
• 호 실 : 301호 • 발 인 : 9월25일 • 장 지 : 화순읍 선영

故 문춘성 님(남/64세)
子 : 문승희 女: 문연주·민주 未亡人 : 주영앵
• 호 실 : 401호 • 발 인 : 9월 25일 • 장 지 : 화순도곡선영

故 이순심님(여/53세)
夫 : 김필중 子 : 김필중, 홍래, 시형
• 호 실 : 402호 • 발 인 : 9월26일 • 장 지 : 영락공원

故 박복순 님(남/64세) 子/子婦 : 이성학·황설국 女 : 이진화 • 호 실 : 101호 • 발 인 : 9월25일 • 장 지 :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 금호장례식장 ☎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종훈·상국씨 부친상 선옥봉·박남두·박종신씨 빙부상 발인 : 9월25일(토) 12시00분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50-4401
▲김선중·완씨 부친상 구연웅·윤여선·김대현·김영대씨 빙부상 발인 : 9월25일(토) 09시20분 장지 : 서구 매월동 선영 연락처 : 250-4409
▲김재평·재화씨 부친상 발인 : 9월25일(토) 09시30분 장지 : 양산동 천주교 묘역 연락처 : 250-4412
▲유봉우·봉규씨 부친상 발인 : 9월26일(토) 08시00분 장지 : 임실호국원 연락처 : 250-4406
▲한석호·성호·평호씨 모친상 민동석·윤성한 김영옥씨 빙모상 발인 : 9월25일(토) 09시00분 장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